

“새로운 전북을 위해”

민주 김관영 전 의원 도지사 출마 선언

새만금특별자치도 그린뉴딜·농생명 조선 부활 등 공약 제시

국회의원 재선을 지낸 김관영 전 의원(53)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전북, 유능한 경제도지사가 되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이대로 4년을 더 허비할 수 없다. 똑같은 길, 똑같은 방식, 똑같은 지방정부를 12년 동안 반복할 수 없다”며 “이대로는 안된다. 이제 전북의 향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의 과제를 대한민국의 과제로 만들고 대통령과 국회를 설득해

움직일 수 있는 힘, 전북이 글로벌 모델로 설 수 있게 하는 힘이 필요하다”며 “젊고, 유능한 경제도지사 김관영이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으로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에너지 대전환과 그린수소산업을 이끄는 그린 뉴딜 △농생명산업의 메카, 농생명산업의 수도 △일일아비리 자동차 산업과 조선 부활 △새로운 한반도 관광벨트로 성장 △제3금융중심지 조성 △공공예대 설립 등을 제시했다.

김 전 의원은 전북 군산 출신으로 사법·행정·회계 등 고시 3관왕을 거쳐 군산에서 민주통합당으로 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대에는 국민의당 뜻을 입고 재선에 성공했다.

국민의당에서 원내수석부대표, 사무총장 등을 역임한 이후 2018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에 복당해 이재명 선대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김 전 의원은 “잠시 민주당을 떠나 있는 동안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도민들께 죄송하다”면서 “전북의 발전을 위해 무뎠던 나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3선 출마가 예상되는 송하진 현 도지사에게 “전주시장과 도지사 16년 동안 많은 교생과 성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면서도 “기업유치에 관한 열정이 부족하고, 전북의 태도는 안이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창의성을 다시 세우고, 도민의 열정을 모아내는 도정이 필요하다”며 “송 지사가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전북의 원로로 남으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의원 출마로 6·1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선거는 민주당 공천을 두고 김 전 의원과 송하진 전복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갑), 김재선 노무현대통령정신계승연대 집행대표 등이 경쟁을 벌인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호 당협위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청년정치인 “지방선거 개혁공천 공동선언”

완주·전주 세대교체 ‘40대 기수’ 두세훈 도의원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 청년후보 공천의무비율 준수 정책 토론 기회 보장 등 주장

두세훈 완주군수 출마예정자,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23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룸에서 ‘개혁공천’ 공동선언을 진행했다.

청년정치인 두세훈, 이중선은 완주, 전주 나아가 전북의 세대교체의 40대 기수로서 2027년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인 이번 6.1 지방선거의 압승을 기원하면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참신한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전북도민의 사랑을 바탕으로 2027년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밀알의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두세훈·이중선 청년정치인들은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에도 2027년 정권교체의 필수조건인 6.1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호남이 먼저 개혁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세훈·이중선 청년정치인들은 민주당이 개혁 공천을 통해 젊고 유능한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출마 예정자인 두세훈 전북도의원(사진 왼쪽)과 이중선 전주 시장 예비후보는 23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개혁공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인재가 넘쳐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첫째, 청년후보가 있는 지역구의 경우 기용어진 운동장 등 고착화된 경선현실을 고려해 시민공천배심원경선 등 당헌 당규에 명시된 다양한 공천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 ▲둘째, 당헌 당규의 규정대로 청년후보 공천의무비율인 기초의원30%, 광역의원20%를 준수할 것. ▲정경 발표

및 정책 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정치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번 두세훈·이중선 청년정치인 공동선언은 그간 시도되지 않았던 신선한 시도이며, 전북 정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호상 기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김관영 전 의원이 2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지사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시 한번 도약하는 장수”

장영수 장수군수, 재선 도전

장영수 장수군수가 오는 6월 1일 실시 되는 장수군수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장 군수는 23일 오전 장수군수 예비후보자 등록 후 군청기차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군수로서 가진 막중한 사명을 잠시 내려놓는다”면서 “제일기간 보내 주신 참여와 소통, 협치의 힘을 믿어 참사를 삼아 장수군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재선에 나선다”면서 장수군수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먼저 “민정부부 계속 실패와 3년째 접어든 코로나 사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발발하면서 서민물가 상승 원자재값 상승과 농산물 가격 폭락을 초래해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고단한 삶이지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굳건히 고향을 지



키며 오늘을 이룬 장수군민을 믿고 군민의 손발이 되어 왔던 웃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정을 맡아 일했던 지난 시간엔 제게 수많은 도전과 시련의 연속이었다”면서 “장수군의 잠재력을 믿고

군민과 함께라면 교통의 중심지, 발전 가능성이 큰 미래의 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고 장수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소명으로 받들었기에 가슴 벅차면서도 무거운 자리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 군수는 “제가 군수로 취임하면서 던지는 부자 농촌 사람 중심의 관망도시를 꿈꾸며 ‘풍요로운 미래의 땅, 합창장수’를 반드시 실현해내고자 말했다는 굳건한 의지를 갖고 군정을 시작했다”면서 “군민들의 응원과 정책에 힘입어 뛰고 또 뛰 결과 공약이행률 98.8%라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장 군수는 풍요로운 미래의 땅, 합창장수 건설을 완성하기 위한 재선 도전의 대표적 공약으로 ▲농가 소득 안정, 미래 먹거리 산업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살기 좋은 장수군, 행복할 장수군을 만들어 인구소멸 문제 해결 ▲친환경 에너지 정책 추진 ▲청년농업인 육성에 집중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강화 등을 약속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공공배달앱 구축, 소상공인 직접 도울 것”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정읍시장에 출마하는 이학수 예비후보가 거리를 나서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민심대장정을 시작했다.

지난 21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 예비후보는 출마회견 직후 생고을시장을 시작으로 매일 거리로 나서 지역업상인들의 근황을 살피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또 매일 아침 출근인사를 실시하고 있는 이 예비후보는 “정치의 본질이 민생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정이 되면 코로나로 더욱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



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배달앱을 구축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직접 돕는 한편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예비후보는 오는 28일 “시민중심의 문화·생명 공유도시 정읍”을 비전으로 ▲농업과 농촌 ▲경제와 일자리 ▲문화·체육·관광 ▲보건 의료와 복지 ▲도시와 교통·환경 ▲보육과 교육 ▲청년·소상공인·자영업 그리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깨끗한 행정 등의 8개 분야 70여 개의 세부사업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정읍 생고을시장 내 다목적 광장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준비된 시장으로서 반드시 정읍경제를 살리겠다”며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정읍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립호남권청소년 디딤센터, 익산 유치될”

도의회 환복위, 세미나 열어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와 국립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전북 익산시 유치를 위한 민관추진위원회가 23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시 유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발제자로 나선 이중섭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라권 청소년들의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기본 현황과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에 대한 수요 분석을 비롯해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에서 진행하게 될 프로그램 운영 방향 및 센터 운영관리 방안 등 센터 건립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정 토론에 나선 김애도 전북도의원(익산 1)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은 과거와 달리 다양한 정서·행동 문제를 겪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이제 국가적 책임임을 피력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시 유치를 위한 세미나

하며, 국립 청소년 디딤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익산시 유치의 당위성으로 ▲전북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청소년들이 겪는 정서·행동 문제 비율이 높은 점, ▲호남권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교통 여건이 유리한 점, ▲충청·세종,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수요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입지 조건, ▲자연친화적 입지조건, ▲지역의 전문 치유기관 및 청소년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가 가능한 점 등을 제시했다.

김윤근 익산시청소년기관·단체협의회장은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를 익산시에 유치하기 위해 언론보도

나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유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 여성청소년과 조남우 과장은 “지난해 3월 센터 건립을 위한 논리 개발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가 익산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며 유치를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좌장을 맡은 이명연 위원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정서·행동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국가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의회와 행정, 교육청,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익산시 유치 분위기를 조성해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가 전북도 익산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어르신 운동처방사·긴급간병인 지원”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건강·간병·생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체계화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3일 조 예비후보는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을 존중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는 전 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담은 노인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노인 정책공약은 언제 어디서나 어르신이 존중받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야말로 ‘모두가 누리는 전주’의 참모습이라는 평소 소신과 함께 전주시민들을 통해 만난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그려냈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우선, 어르신들이 지내는 곳에서 돌봄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Community care)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요양·가사 간병, 생활 지원, 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생관리 등 생활 안전을 정기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하는 한편, 지역사회 의료·돌봄서비스 원스톱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돌봄 매니저 채용을 추진해 이용률과 편의성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효율



성까지 높여나가는 복안이다.

조 예비후보는 또 어르신의 운동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처방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보호가 불가능한 어르신에게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긴급간병인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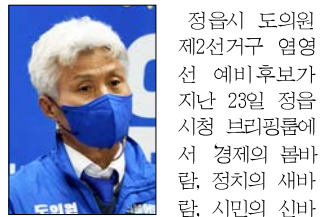
이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자나 기간종 서비스 희망하는 어르신 200명부터 우선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어르신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은 후대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모두가 누리는 전주, 완전히 새로운 전주를 위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지원 또한 ‘존중’을 바탕으로 확고하게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신바람 나는 정읍”

염영선 정읍시 제2선거구 전북도의원 출마 선언



정읍시 도의원 제2선거구 염영선 예비후보가 지난 23일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읍시의 변화, 정치의 새바람, 시민의 신바람, 바람 불어 좋

은 정읍’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지자들과 함께 출마 선언을 하였다. 자신을 정의로운 청년 깨어있는 시민, 교육 사업가로 소개한 염영선 예비후보는 “지난 30년 동안 학원이라는 한 우물을 팠던 소신과 철학으로 실용적인 교육여건 조성으로 인구와 인재유입으로 침체에 빠진 정읍을 살리겠다”면서 출마의 각오를 밝혔다.

이날 염 예비후보는 ‘활교활지(活教活地)’를 비롯한 사활(四活)공약을 실현하고자 도의원에 출마했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상동에서 ‘성군관학’을 운영 중인 염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교육특별위원장과 정읍시학원연합회장, 정읍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지난날 상동공공플러스센터에서 자신의 저서 ‘계상은 약간 미쳐야 재밌다’의 사회화를 성취하게 되었다. /정읍=김대환 기자